

난다이문 문(남대문)(무로마치 시대 국보)

웅장하고 거대한 소나무가 쪽 늘어선 넓은 참배길 끝에 우뚝 솟은 8 개의 기둥을 가진 이 우아한 문은 호류지 절의 주입구인 난다이문 문(남대문)입니다. 예전에는 주문 문(중문) 근처에 있었지만, 사원이 확장되면서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. 창건 당시의 문은 1435 년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438 년에 재건되었습니다. 건축적인 특징으로는 하나히지키(花肘木)라 불리는 꽃 모양의 장식용 이음 부재와 기둥을 관통한 가로 부재 끝단의 기바나(木鼻)라 불리는 부분에 장식된 꽃 모양 조각 등을 들 수 있습니다.